

‘통일, 한걸음부터’ 올레길 걷기

내일 백운광장서 발대식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실시
마을순회 평화메시지 홍보

광주시 남구는 민선 7기에 남북 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추진한 통일 분야 정책 기조를 민선 8기에도 이어받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월 한차례씩 통일 올레길 걷기를 비롯해 남북 화합의 상징인 한반도기 상시 게양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정착 실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0일 백운광장에서 ‘남구 통일 올레길 걷기 발대식’이 열린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광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매월 둘째 주 금요일마다 관내에서 통일 올레길 걷기를 진행한다.
통일 올레길 걷기는 초창기에 행정기관 주도로 진행한 뒤 마을 단위 중심의 전방위적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네 주민들과 민간단체 중심의 통일 걷기 운동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관내 17개동 산책로 등 마을길을 중심으로 통일 올레길 걷기 코스를 발굴, 매월 한차례씩 각 마을을 순회하며 통일에 관한 평화 메시지를 알릴 계획이다.
먼저 오는 10일에는 백운광장에서 동성고를 잇는 푸른길 공원 왕복 5.6km 구간에서 첫 번째

통일 발걸음을 내딛고, 7월에는 사직공원에서 양립동 일원을 누비는 두 번째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혹서기인 8월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9월과 10월, 11월에 각각 광주공원-광주천변길, 노대 호수공원-분적산, 빛고을노인건강타운-대촌천 일원으로 이동해 통일 올레길 걷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남구는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남·북 화합을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구형 앞 계양대에 연중으로 펼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남과 북의 화해·협력 및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일 올레길 걷기에 참여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한발씩 내딛는 발걸음은 한반도 평화통일 진전에 중대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임채민 기자

효천1지구에 ‘바람길 숲’ 조성

사업비 5억 투입...9월 마무리
통행로 2.2km 산들바람 유입

광주시 남구는 효천1지구 일원에서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심에 산재한 숲을 연결해 차가운 공기를 끌어오는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
남구는 8일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효천1지구 임정교에서 서구 경계간 2.2km 구간에 바람길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람길 숲은 낮과 밤의 기압차를 이용,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해 공기순환을 유도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숲이다.
분지로 된 지형 구조로 대기 오염물질 정체가 심했던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에서 1970년대부터 바람길 조성을 통해 대기오염을 해결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홍콩과 일본 오사카 등을 비롯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생태 시스템이다.

남구는 오는 9월까지 효천1지구에서 서구 매월동 방향으로 연결된 효천로 가로수와 완충녹지를 중심으로 바람의 흐름을 유지하는 연결 숲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효천로 양방향 주변에는 보행로 3.5m와 자전거 도로 1.5m를 합한 폭 5m 가량의 통행로가 조성돼 있으며, 통행로 좌우에는 기존에 등성등성 심어 놓은 나무와 완충녹지가 조성된 상태다.
남구는 통행로 양쪽에 다양한 나무를 심어 산들바람이 유입되는 숲 형태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새로 식재하는 나무는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권장하는 조림 수종과 광주 지역 식생현황 분석 자료를 토대로 홍가시 나무를 비롯해 은목서, 에메랄드그린, 환금사철 등 7종 2만1,000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사업비 8억3,000만원을 투입해 효천1지구 아파트 단지와 효천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했으며, 임정마을 방향 효천로 일부 구간에 바람길 숲 조성 1차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임채민 기자



8일 행복한국복지 7979센터는 폭염을 대비해 관내 노후 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쿨한 여름나기 노후수전 교체사업’을 진행중이다. /남구 제공

폭염 취약가구 노후 수전 교체

관내 독거노인 30세대 지원
이달 중순까지 분사기·호스 등

광주시 남구가 올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열섬효과 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분사기 호스와 핸드 수도꼭지 등 노후 수전 교체에 나섰다.
8일 남구에 따르면 행복한국복지 7979센터에서는 폭염을 대비해 관내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서 ‘쿨한 여름나기 노후 수전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가구의 내·외부 수전을 서둘러 교체하는 이유는 지난 4월 APEC기후변화센터에서 내놓은 ‘올해 5-10월 동아시아 계절 예측 기후 전망’에서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또 낡고 오래된 수전 설비를 새것으로 교체, 물 뿌리기를 통해 지표면 온도 상승으로 나타나는 열섬효과를 줄이면서 미세먼지 등을 씻겨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남구는 지난해 사직동과 월산동, 주월 2동 등 관내 노후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세대 20가구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노후 수전을 교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남구

는 올해 사업 범위를 넓혀 오는 6월 중순까지 노후 주택 밀집도가 높은 사직동과 월산동, 월산4·5동, 방림1·2동, 주월1·2동 등 관내 8개동 취약계층 세대 3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수전 교체 사업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들 세대에 제공하는 수전 시설은 청소 및 분무용 호스와 분사기, 수도관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원터치 커플러를 비롯해 수도꼭지가 녹슬 경우 연료한 어르신께서 사용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손잡이 형태로 손쉽게 돌리는 핸드형 수도꼭지로 교체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노후 수전 교체 작업은 행복한국복지 7979센터 동행업체 3곳에서 손을 보태기로 했다”며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피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채민 기자

‘건축사 전문 컨설팅’ 민원 해소 ‘톡톡’

신축·증축 등 작년 233건 처리

광주시 남구가 지난해 건축사 전문 컨설팅을 통해 건축 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함과 동시에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악재에도 건축 관련 컨설팅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부터는 구청 1층에 전용 공간을 마련해 고품질 건축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8일 남구에 따르면 건축사 전문 컨설팅은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는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광주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관내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건축 성수기인 6월부터 9월말까지 석달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씩 운영했다.

주민들이 상담한 주요 내용은 토지 매입 전 건축 가능 여부를 비롯해 농지와 산지 전용 부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 절차 및 공사 중 민원 발생에 대한 관련 법규 등이었다.
매년 건축사를 통한 사전 컨설팅 활성화는 건축 관련 주무부서의 인·허가 처리 등 민원 해소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건축과에서 지난 2021년 한해 처리한 건축물 신·증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 민원은 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0년 처리 실적 180건과 비교해 53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건축사 전문 컨설팅이 민원인 및 주무부서의 업무 처리 효율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다.
남구는 올해부터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구청 1층 민원실에 건축사 전문 컨설팅 공간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9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와 오후 2-4시에 무료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채민 기자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7곳 지정

광주시 남구는 8일 “사회적 울타리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대 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7곳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관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하이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비롯해 아이나라 정신건강의학과, 복음 내과의원, 이덕용 소아청소년과, 정 내과의원, 삼선의

원, 잠빛안과의원 7곳이다.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7곳은 관내에서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신체·정신적 검진 및 치료 등 피해 아동 보호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서 학대 피해를 받은 의심 징후를 발견할 경우 구청에 즉각 신고해 2차 피해를 차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임채민 기자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정식

‘다미정’에 오시면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다미정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의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